

포용국가를 위한 공감, 배려, 정의의 포지티브섬 융합 구조

김대영¹

I. 들어가는 글

4차산업혁명의 초융합시대에 기술적 초융합에도 불구하고 발전에 배제되는 사람들과 기업들은 늘어나고 사람들은 점점 공감을 잃어가고 행복을 잃어가고 있으며 경제의 불균형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기존의 기득권의 양보라는 측면이 강한 정의, 배려, 공감 대신에 비득권의 참여를 포함한 모두를 배제하지 않고 참여시키는 포용과 포지티브 섬 개념을 도입하고, 이러한 포용과 포지티브 섬을 이루기 위한 융합철학과 포용의 포지티브 섬 구조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융합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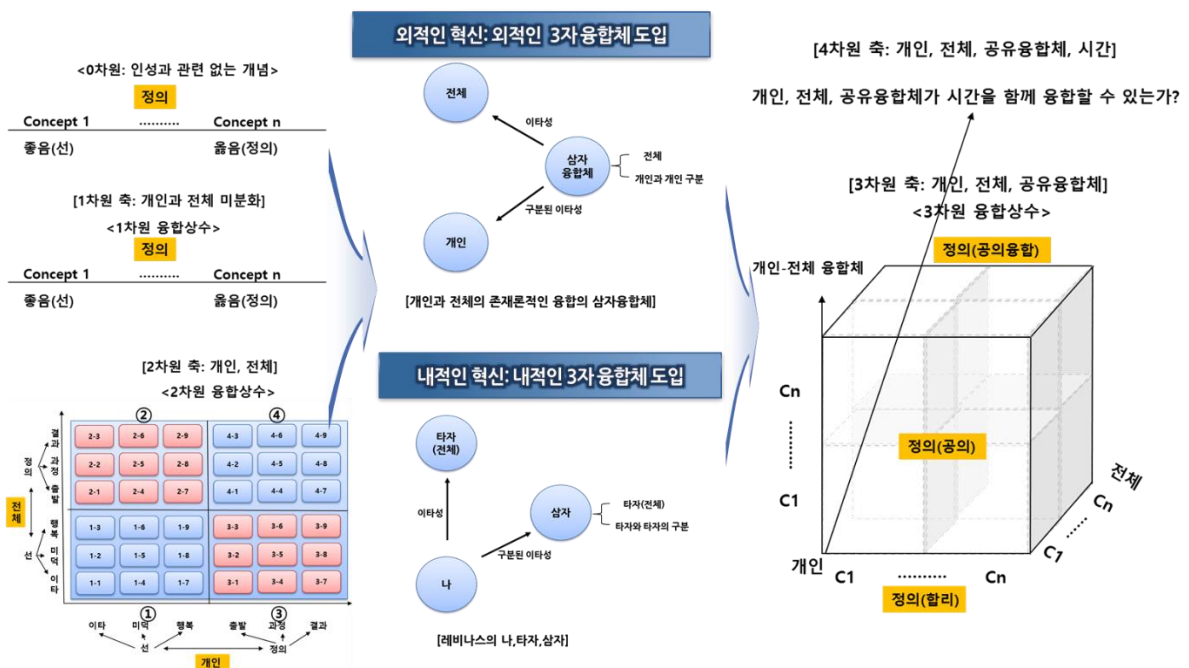


Figure 1 3자융합체의 도입과 융합철학기반의 융합정의론²

근대 이후 개인의 사적 소유권과 자유의 강조는 공동체 성의 훼손을 낳았다. 그러나 공동체 성이 줄어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의 자유가 줄어들게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¹ 융합경제연구소 대표

² 출처: 김대영, 융합정의론, 2016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구조와 방법 그리고 철학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철학적인 혁신을 살펴보고 이후에 구조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융합철학의 개념은 다양한 철학적인 개념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먼저 Figure 1 3자융합체의 도입과 융합철학기반의 융합정의론에서와 같이 정의론에 적용할 수 있다.

근대 자유주의이후에 개인과 전체가 분리되었던 철학의 존재론적 개념을 2차원적인 평면상에 두고 그러한 개념들을 지원하는 3자융합체를 도입하여 존재와 개념을 함께 융합한다. 3자융합체에서는 개인과 전체가 개인의 자유와 이기심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체가 융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3자융합체가 개인과 전체를 이타적으로 지원하여 포지티브 섬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3자융합체가 도입된 구조에서 개인과 개인들이 모인 사회들은 법적인 존재로서 소유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들이며 각 개인들과 사회들은 그들의 이기성을 추구한다. 그런데 개인과 사회가 융합된 3자 융합체들이 개별 개인들과 사회들을 이타적으로 지원하여 자신의 이기성을 추구하는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의론적 관점에 개인과 전체가 분리되면서 생기는 비정합적인 모순들을 해결한다.

또한 자유론도 기존의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비지배 자유, 공화의 자유등으로 분화된 자유의 개념을 통합하고 개인과 전체의 적극적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개인과 전체가 분리되면서 생기는 비정합적인 모순들을 해결하며 융합한다.³

III. 포용(Inclusiveness)의 3중 구조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를 포함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감정의 영역에는 개인과 사회가 공감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되고 복지과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하고 경제영역에는 모두가 배제되지 않고 생산에 참여하고 그 분배를 기여한 만큼 가질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가져야한다.

이때 배려는 감정과 물질적인 경제와 복지의 중간에 위치한다. 배려는 감정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과 돌봄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정의와 공감의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다. 배려는 정의에 가깝게 될 때에는 영어로 돌봄(Care)의 의미가 되고 공감에 가깝게 될 때에는 사려(Consideration)의 의미가 된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공감과 배려와 정의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융합의 철학의 존재론을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와 개인차원에서 공감의 구조, 배려의 구조와 정의 구조를 포지티브섬 구조로 만들 수 있다.

³ 융합자유론 출처: 김대영, 융합경제 3.0 그리고 자본주의 7.0,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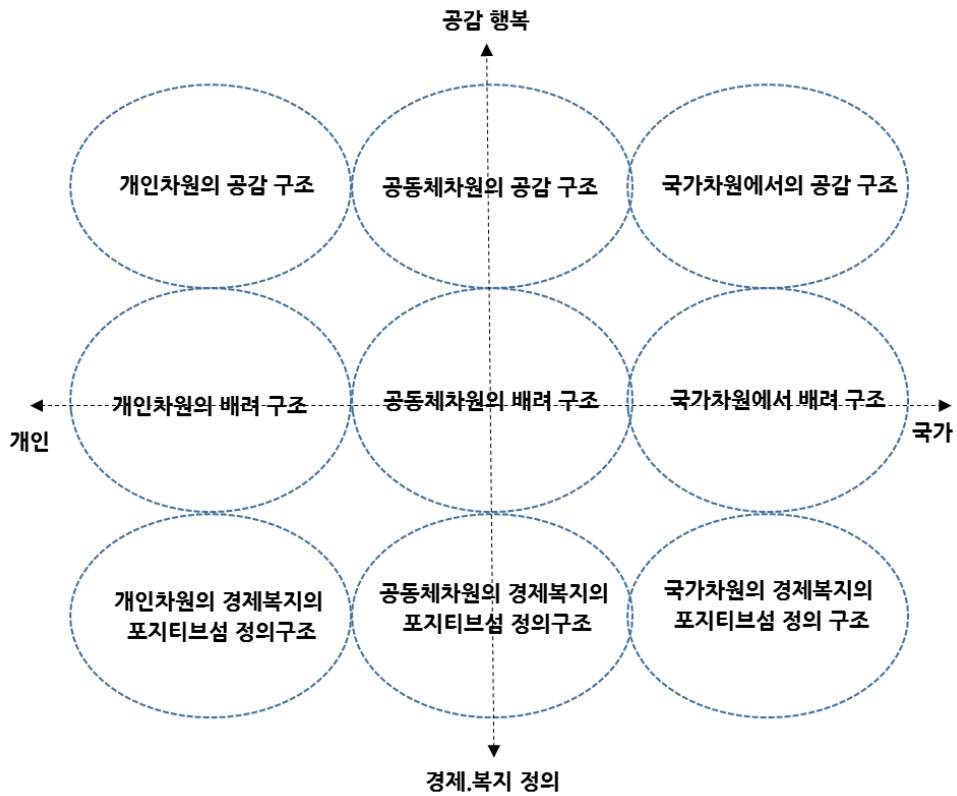


Figure 2 공감 배려 정의의 3중구조

IV. 물질, 지식, 감정의 전달구조

우리가 공감할 때 상대방과 일으키는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물질, 지식, 감정의 3가지 수준에서 전달 구조를 생각해보자. ⁴

첫째 물질적인 수준이다. 물질은 전달할 때 이동(Move)되는 특징을 가진다. 수여자가 소유한 물질 중 1을 수혜자에게 준다면, 수여자의 총 물질 중 1이 사라지게 된다. 반면, 수혜자가 1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수여자는 물질을 줄 때 아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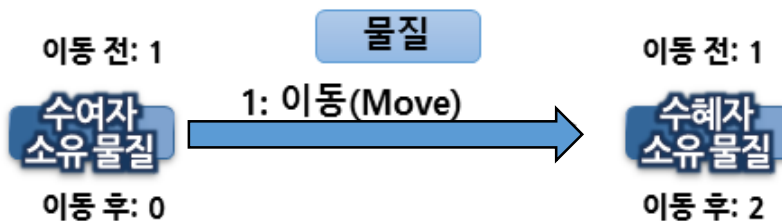


Figure 3 물질의 전달구조

⁴ 출처: (김대영, 서울시 사회적경제교과서)

시간, 돈, 물건들이 배려하는 상대방에게 이동한다. 수혜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공평성을 이룰 수 있지만 제로섬 구조이다. 현재의 경제와 복지 영역이 이것에 해당된다.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나누게 될 때 아주 풍족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배려가 쉽지 않다.

둘째 지식적인 수준이다. 내가 가진 지식을 상대에게 주면 상대도 나와 동일한 지식을 가진다(복사).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식을 줄 때 즐거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아까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게 된다. 포지티브 섬이 일어나지만 다른 보상이 없다면 한쪽만 혜택을 받게 되는 불평등 포지티브섬이 일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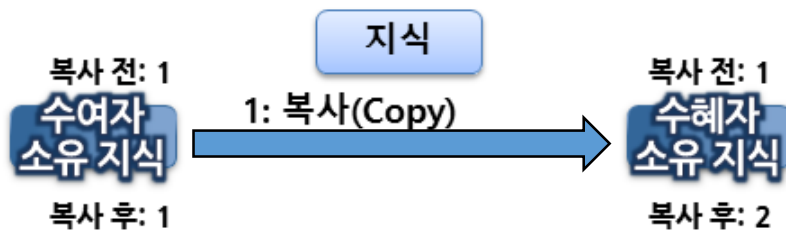


Figure 4 지식의 전달 구조

이 수준은 지식기반 경제가 되면서 경제영역으로 활성화되는 영역이다.

지식기반 경제가 되면 이론적으로 수확체감에서 수확체증으로 경제법칙이 바뀌어 가야하지만 실제로 수확체증이 구현되지 않는 이유는 지식기반 경제와 공유경제를 이루는 플랫폼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고 기여 한대로 지식에 대한 대가들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감정적인 수준이다. 감정은 내 마음속에서 먼저 창조되고 발생되어(창발되어) 내가 먼저 느끼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나의 좋은 감정을 상대에게 주면 내가 준만큼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뻐진다. 이 영역은 첫번째와 두번째와 달리 수여자가 자신이 가진 것을 수혜자에게 줄 때 수혜자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유일하게 포지티브 섬이 공평하게 일어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의 포지티브 섬을 평등 포지티브섬이고 부를 수 있다.

물질, 지식과 달리 감정에서 창발적으로 수여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같은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된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Figure 5 감정의 전달 구조

V. 공감넘치는 사회를 위한 포용의 포지티브섬 공감구조

자본주의 역사가 긴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붕괴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에 자본주의가 주는 자유와 함께 기본적인 공동체성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특히 유태인들은 뻔뻔하고 담대함으로 번역될 수 있는 후츠파 정신으로 어려서부터 격렬하고 창의적인 토론 정신을 기르면서도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시대 유교의 4색당파 싸움, 그리고 식민지와 6.25전쟁 이후의 남북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의 영향으로 이론과 주장이 다를 때 그것을 토론하면서 공감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유태인들과 같은 격렬한 토론을 바로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공감과 도전, 창의정신과 배려가 융합된 새로운 정서가 한국인을 위해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법 중에 하나가 치열한 브레인 스토밍 후에 서로 상대방을 지지하며 공감이 폭풍처럼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공감폭풍이 있다. 이때 감정의 영역에서 공감의 긍정적인 감정이 폭풍처럼 일어나는 과정을 Figure 6 브레인스토밍(Brainstroming)을 위한 공감폭풍(EmpathyStroming)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감정은 인간의 내적인 영역(마음)에서 일어나고 감정이 전달되지만 같은 감정이 나에게도 창조되는 창발적인 특징이 있다. 즉 감정이 외부로 전달되기 이전에 감정이 생긴 사람 안에 먼저 창조적으로 발현(창발)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이동한다. 그래서 이러한 폭발적인 메커니즘을 알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도 먼저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 폭풍은 평등 포지티브 섬 구조이며 공감 폭풍을 일으키는 참여자들이 공감과 감정으로 서로 연결된 공동체가 될 때 생겨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 폭풍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포지티브 섬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감과 공감의 훈련은 튀기를 싫어하는 일본의 화(和)의 공감과 배려 보다, 후츠파의 유태인의 공감과 배려 보다, 이성적인 서구인들의 공감과 배려보다 개인의 자유가 증진되면서도 공동체성이 융합된 따뜻하면서도 창의적인 한 차원 높은 공감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포지티브섬 공감 구조에서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존재적으로 하나라는 융합적인 존재의식을 가진다. 그래서 존재의 의식을 바탕으로 내가 공감해주는 것만큼 상대방과 공동체로부터 공감을 받는다. 생각과 사상을 뛰어넘어 무조건적인 공감과 지원을 주고 받는 상태와 치열한 토론을 주고받는 상태가 공존한다. 치열한 토론으로 지친 마음과 정서가 무조건적인 공감과 지지 가운데 회복될 뿐 아니라 무조건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아이디어가 융합되어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낸다. 서로의 생각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확장시키며,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계속 하더라도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창의적인 포지티브섬 공감구조를 기반으로 한 융합 토론 프로그램을 한국의 교육현장과 기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⁵

⁵ 고등학교 서울시 사회적경제교과서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공감상승 브레인스토밍(Empathstorming Brainstorming) 교육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것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감의 크기를 숫자로

이러한 토론 프로그램과 구조는 공감이 증폭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배려의 내부구조와 연결되어 편안한 상황뿐 아니라, 치열하게 경쟁하며 토론할 때에도 서로를 배려하며 공동체성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배려가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저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고, 보수와 진보의 한계를 넘고,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모두가 자유로우면서도 행복하고 공감하며 창조적일 수 있는 공감의 융합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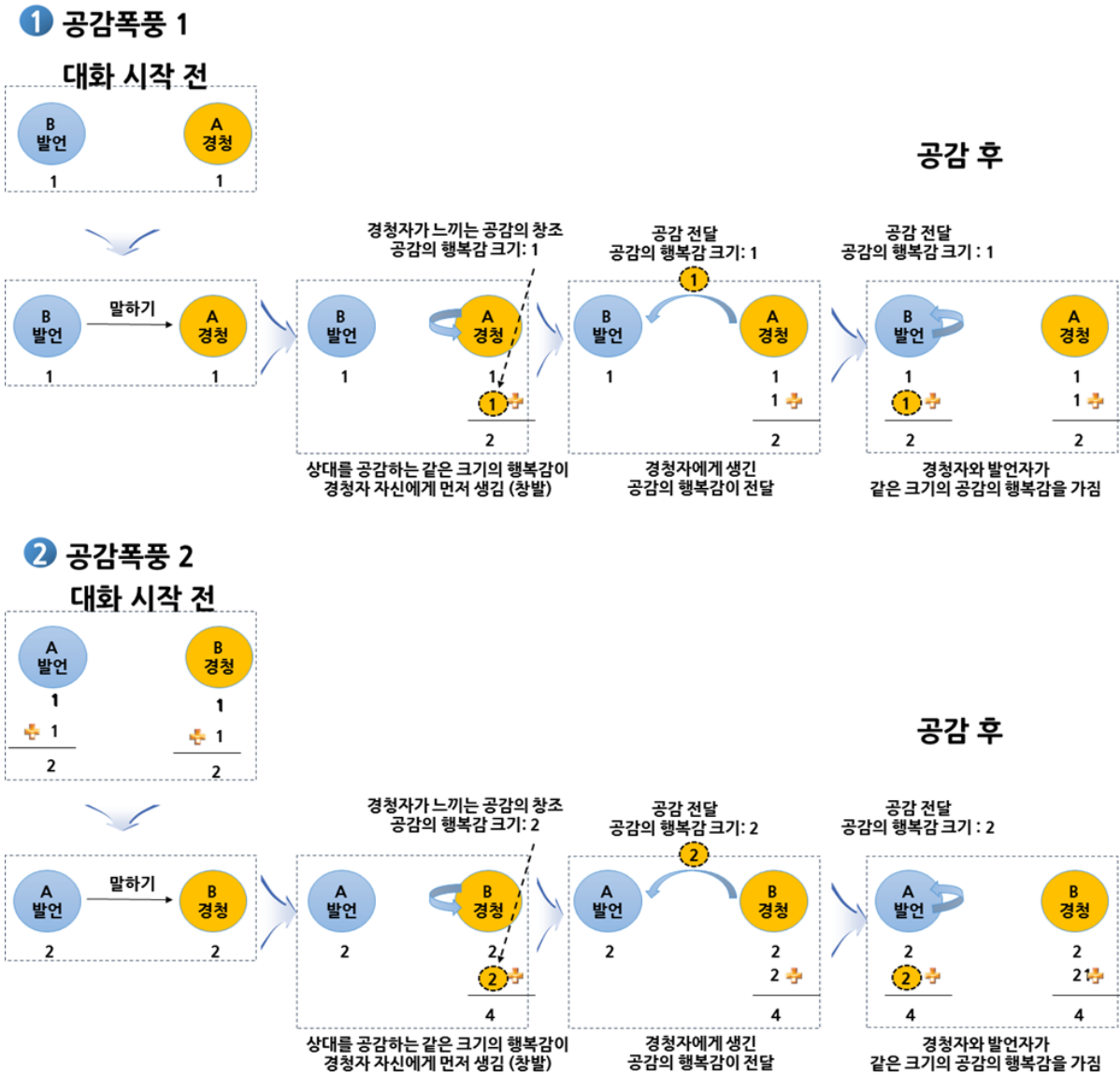


Figure 6 브레인스토밍(Brainstroming)을 위한 공감폭풍(EmpathyStorming)

정량화해서 나타내고 숫자를 주고 받으며 자신의 감정이나 공감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공감이 일어나며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이 융합되고 개인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탈북민들과 일반 남한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7년 동안 적용하여 효과를 본 것이다

VI. 포용의 포지티브섬 정의구조

경제정의구조에서 포지티브섬 구조는 투자의 개념과 연결성을 가진다. 경제구조상에서 미래가치를 현재화하는 투자구조를 통해 개별적으로는 투자를 받지 못했던 경제주체들이 3자융합체를 통해 누구나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경제와 복지 구조를 만들게 될 때 경제 정의에서 포지티브섬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현재 선진국들은 SIB(Social Impact Bond)라는 구조를 통해 증세없는 복지, 포지티브섬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SIB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SIB는 전체 복지와 사회 서비스의 영역이 아니라 미래의 예방적인 분야에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나중에 성과를 보고 지불하는 구조이어서 이미 어느정도 복지가 이루어진 선진국과 달리 보다 기본적인 복지 부분에 투자를 더 해야하는 한국에서는 SIB와 함께 기본적인 복지에 투자를 더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양극화되어가고 있고 정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약자에 대한 복지와 경제적 배려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도 복지를 위한 재원을 늘려야하지만 늘릴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투자를 받지 못하는 대상들을 융합하여 투자를 받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융합적인 구조로 제시되는 SHC(Servant Holding Company)⁶는 기업이나 개인이 그들의 소득, 매출, 이익, 비용, 부채까지 미래의 경제적인 흐름을 자본화하여 투자를 받아 기여 한대로 기업과 개인에게 나누어주고 지속가능하게 자본을 내부시장에서 운영하는 특징을 가진다.

SHC로 기업들을 융합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소비를 자본화하여 투자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Figure 7와 같이 신생아의 소비를 SIB로 투자하고 그것을 다시 유동화하여 SHC로 열린내부자본시장을 만들어 신생아가 생애주기로 자라면서 커갈 산업에 SHC 형태로 투자하여 지속가능하게 소비와 산업이 SHC 구조 안에서 함께 커가는 모델을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기본소득이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달리 신생아의 부모에게 20년동안 매달 1백만원의 수당과 보조금을 민간자본시장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민간자본도 IRR 20%이상으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으며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또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게 된다.

⁶ SHC는 투자대상들이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계약을 통해 신뢰관계가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합자조합이 소유하는 주식회사를 만들어 공유되는 지분을 형성하는 합자조합형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에서 파트너십을 위한 다양한 공유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그 수익과 지분을 파트너십이 기여 한대로 소유한다. (김대영 & 심상달, 구약희년 경제와 자본시장 민주화, 2015) (김대영, 심상달, 장원석,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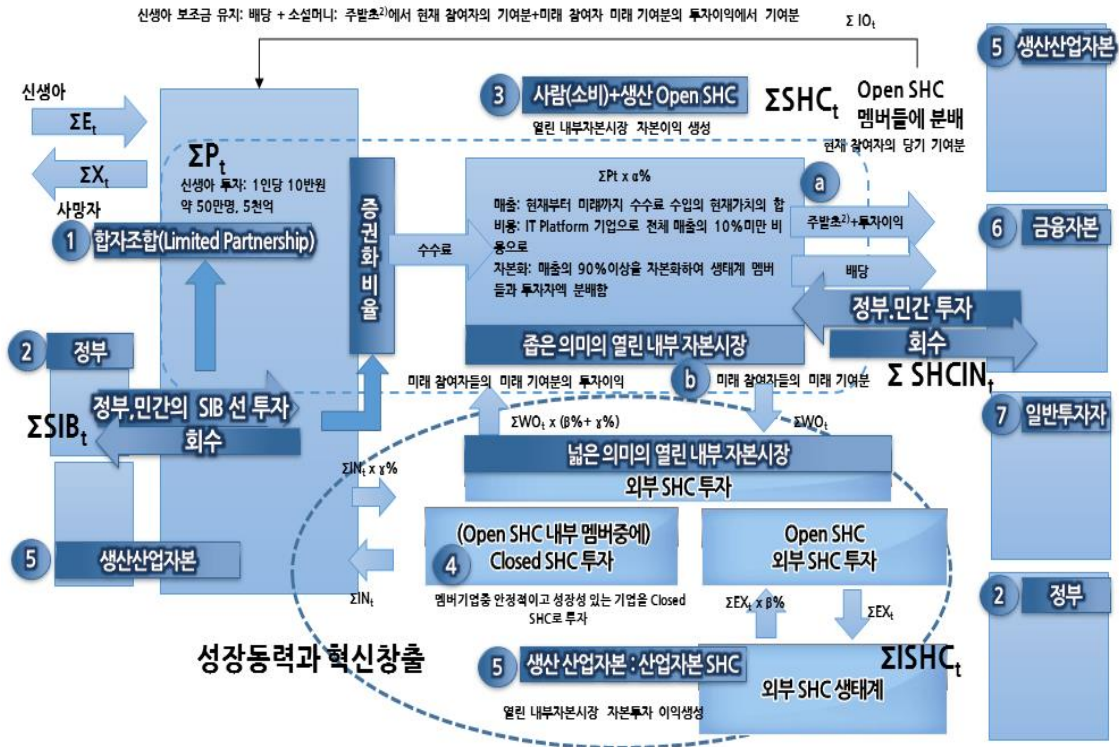


Figure 7 SIB와SHC를 사용하여 신생아 소비와 연관된 산업을 융합⁷

포지티브 섬 융합 경제 구조에서는 Figure 8에서 출발선의 정의 문제를 해결해서 2차분배인 세금을 10% 내외로 걷는다 하더라도 1차분배만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없이 모든 개인과 기업이 그들이 미래에 기여하는 가치를 현재가치화하여 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그들이 경제적 주인으로서 경제의 적극적 자유를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정성, 정부의 재정, 그리고 개인의 노동의욕 감퇴의 문제가 있어 실행하기 어려운 기본소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자본을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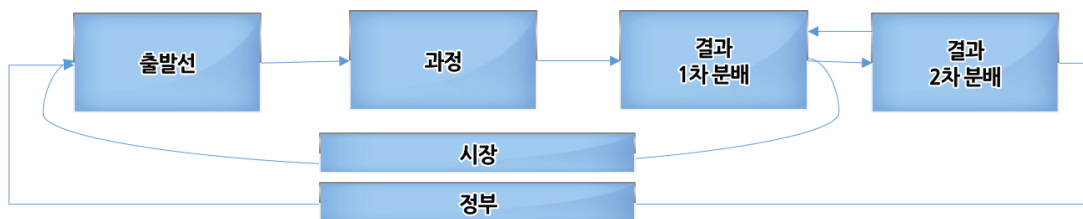


Figure 8 출발선의 정의, 성장과분배의 융합

또한 포지티브 섬 융합 경제 구조는 경제구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포지티브섬 구조에서 서로를 경제적으로 배려하면서도 서로 경쟁하는 배려적인 경쟁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의 좋은 예가 크레딧 카드 산업에 이루어진 비자 인터내셔널과 같은 구조이다. 크레딧 카드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지만 비자 인터내셔널은 카드를 서로 연결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산업을

⁷ 출처: 합계출산율 문제 해결, 김대영, 사회적금융연구회,, 2016

동반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크레딧 카드 산업에만 만들어지고 다른 산업에서 생기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1970년 중반 이후의 대규모 자본화로 현재는 비자인터내셔널과 같은 역할을 구글과 같은 플랫폼 독점기업이 하는 형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를 경제 참여자 모두가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형 주식회사의 투자구조를 경제참여자에게 적용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기득권까지를 포함한 모두를 배려하는 경제민주화를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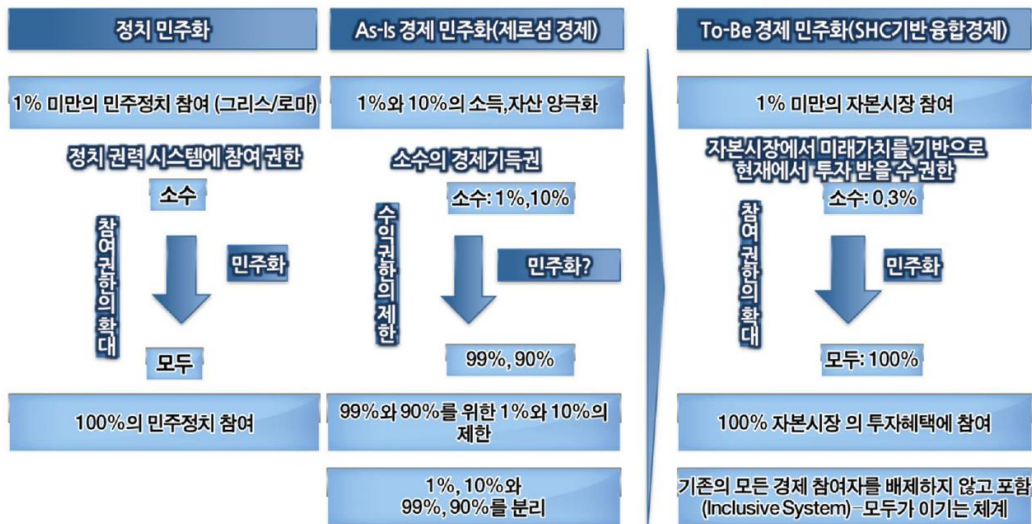


Figure 9 배제하지 않고 모두가 포함되어 참여하는 자본시장과 자본에 의한 경제민주화

VII. 포용의 포지티브섬 배려구조

우리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현재의 치열한 경쟁위주의 사회, 배려가 부족한 문화에서 아름답고 창조적이며 풍요로운 사회, 자발적인 배려가 넘치는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배려의 하부구조인 경제정의와 배려의 상부 구조인 공감에서 포지티브섬 구조를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감, 배려 정의의, 포지티브섬 융합 구조에서 배려는 하부구조보다는 보다 내적이며 정신적이며 상부구조보다는 보다 외적이고 물질적인 중간지대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모두를 배제하지 않고 풍요로운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은 배려의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창의적인 공감 프로그램등을 가정과 공동체, 학교에 적용하여 새로운 공감의 동력을 얻는 것은 배려의 상부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포지티브섬 융합구조로 경제의 정의를 세워나가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행복한 공감의 융합공동체를 공감의 포지티브 섬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간다면 배려는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아름다운 돌봄과 섬김의 배려의 문화, 조직, 제도는 곳곳에서 창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VIII. 나가는 말

4차산업의 초융합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자체가 융합적인 포지티브섬 구조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인 자각을 바탕으로 포용의 포지티브 섬 구조를 우리의 관계와 조직 가운데에서 공감으로 실현하고, 배려로 실현하며, 우리의 경제적 존재를 융합시켜 경제구조안에서 실현할 때 모두를 포함하는 경제의 정의를 실현시키며 모두가 자유롭게 행복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우리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Fried, C. (1983). Liberalism, Community, and the Objectivity of Values, ". (p. 960). Harvard Law Review, vol96, no.4(Febuary 1983).
- 강희원. (2003).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비추어 본 '법이념으로서 정의'. 한국법철학회.
- 김대영. (2012). "융합경제 3.0 그리고 자본주의 7.0." 퍼플.
- 김대영, & 심상달. (2015). 구약희년 경제와 자본시장 민주화. "기독교경제학회,기독교문학회."
- 김대영, 심상달, & 장원석. (2014). "융합적 사회적경제와 SHC." 금융연구원.
- 김도형. (2011년 6월). 레비나스의 정의론연구. "대동철학회", 페이지: 243-265.
- 김상조. (2012년 12월).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경제와 사회", 페이지: 112-140.
- 김정오. (2000). 공동체주의와 법에 관한연구. 한국법철학회.
- 박상혁. (2011). 자유주의 정의론에서 평등과 책임의 요구. "철학연구", 125-151.
- 박우희. (2012). "답을주는 경제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정순. (1999). 공동체주의 정의관의 본질과 그 한계. "철학 61권 0호", 267-292.
- 서광조. (2001). 공동체주의와 경제윤리.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제 4호.
- 윤대선. (2003). 레비나스윤리의 해석적기원과 유다이즘. "철학,76", 181-207.
- 이민수. (2011). 공동체의 정의와 개인의 선은 정합 가능한가?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임의영. (2010).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논거 모색: A. Sen의 능력이론을 중심으로. "2010 하계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

주동률. (2005). 롤즈와 평등주의. "인문논총 제 53집", 103~145.

최원. (2011). 무엇이 정의인가? 마티.

현우식. (2010년 2월). 신의 존재에 대한 괴델의 수학적 증명. "한국수학사학회지 제23권 제1호".